

##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자유주의는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렇지만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별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입장에 따라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 가진 약점은 그 호소력과 관련된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또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연대와 충성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으로부터 생겨난 도덕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 한, 즉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까지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도덕 및 정치적 경험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살아가는 연고적 자아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라는 관점에 기반을 둔다. 그렇지만 공동체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와는 구별된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에 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내면화하고, 공동체에 관한 소속감을 지니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를 장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행동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오직 당사자와 관련된 행동들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판단을 돕기 위해 그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해줄 수 있고, 그 개인의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이런저런 권면들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 개인이어야 한다. 그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서 온갖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질러진 잘못



# 2026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못들로 인한 해악보다는, 그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개인에게 강제했을 때의 해악이 훨씬 더 크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마)

‘규칙성’에서 어긋난 것, 즉 ‘비규칙성’은 사회성원들에게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비규칙성’은 인간에게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반복성, 즉 그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결여되면 인간은 불안해진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지상의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택하기보다 지하철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비교적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기에 약속 장소에 도착할 시간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을 선호하고 그것에 의한 안도감을 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아무리 구태의연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하는 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학적 통찰의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규칙적’인 것은 ‘정상’으로 ‘비규칙적’인 것은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후자를 회피한다. 그들은 나아가 ‘비규칙적’인 것은 심지어 “인간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비난한다. ‘비규칙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을 등치시키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뿌리 깊은 인식 경향은 한편으론 옳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그른 것이다. 우선, 그들의 인식이 옳은 이유는 그 행위의 ‘규칙성’이 순전히 ‘인간적’인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 - 비록 그것이 직접적이지 않고 짐승과 유아를 통해 우회적으로 터득하고 판단한 인식들이긴 해도 -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한 그릇된 것은 그들이 ‘인간적’이라는 것을 생래적인 것, 고정불변의 것, 하늘에서 그쳐 주어진 것 등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한 인식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인간적인 것’, 즉 행위의 규칙성 혹은 제도는 바로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사회 내의 모든 규칙성을 지닌 신념과 행위(즉, 제도)들은 그 사회의 성원들에 의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들이 사회마다 집단마다 그 내용과 형식이 다르고 또한 부침(浮沈)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것에 ‘인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이다. 요약하면, 그것들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들에 의해 ‘반복된’ 것들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고정불변의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눈을 시종일관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든 그동안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대화를 나눈다.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 방식이고, 저들의 정상적 방식이다. 즉,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행위이고 곧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상적 방식은 저들에겐 비정상적이고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것이 저들에겐 정상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각각이 어떤 사물에 혹은 사회적 대상에 본래적으로 내재해 있는 속성이라고 보는 것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다.

- 김광기,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이방인」

(바)

단편 소설 「채식주의자」는 아내 영혜가 갑자기 육식을 끊겠다고 선언하자,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시점에서 전개된다. 연작 소설의 서장 격인 이 단편은 육식 종언을 한 아내의 특이한 행동에 대한 남편의 고발장이다. 아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은 아내를 자신의 피곤한 삶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내조인 정도로만 치부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 남편은 부당함과 불편함을 토로하기에만



# 2026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바쁠 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꿈에 사로잡힌 아내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남편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꿈을 꾸 뒤 돌연히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아내의 황당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아토피 치료나 스님들의 살생 금지 원칙이 채식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얼핏 이해한다고 인정하지만 그 이해를 아내의 상처에까지 확장시키지는 못한다.

영혜가 채식주의 하게 되는 일차적 계기는 꿈 때문이다. 그녀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고 죽는 끔찍한 꿈을 꾸 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고기들을 버리고 채식주의 시작한다. 그녀에게 채식주의는 죽고 죽이는 살생의 반복에서 벗어나 정신적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것은 오래 전 어린 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맛있게 먹어 치운 죄의식을 벗어던지게 해주는 의식이자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적대적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 속에서 채식주의자는 불편한 존재이다. 영혜는 가족들에게 비난받고 남편의 직장 상사 모임에서도 눈총을 받는다. 도살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합의와 관습의 세계에서 자신이 공모자라고 느끼며 그녀는 살생을 삶의 원칙으로 내면화하길 거부하지만, 현실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가 매우 어렵다.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조차 그녀의 행동을 못 견뎌하며 이해하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혜는 점점 소외된다.

남편은 처가 식구들을 통해 영혜를 파악한다. 육식을 즐기는 처가 가족들의 무난한 성향에 비추어볼 때 아내의 돌연한 반항은 이상 행동일 뿐이다. 가족을 통해 영혜를 이해하려고 하는 남편은 억울한 느낌만을 갖는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장인과 헌신적인 장모 그리고 아내보다 경제력과 매력이 뛰어난 영혜의 언니를 보며 무능한 형남에 대한 질투를 느끼고, 이로 인해 아내에 대한 이해를 차단한다. 남편의 이혼 결심은 처형이 새로 마련한 집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굳어지게 된다.

처가 식구들, 즉 영혜 부모와 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전과 달리 변해가면서 풀릴 수 없는 속마음을 가지게 된 영혜를 가족들은 무시하고 부정하다 결국 처벌한다. 집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고기를 거부하는 영혜의 따귀를 때리고 그녀의 입에 고기를 넣으려는 시도를 반복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감추어두었던 그녀의 상처를 자극하게 되고 영혜는 자해로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 그렇게 영혜는 가족과 소통하지 못하고 신경증 환자로 남게 된다.

- 정미숙, 「한강, 채식주의자 깊게 읽기」

## [문제 1-1]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소설의 갈등 상황을 제시문 (가)~(마)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라)를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제시문 (마)의 관점을 포함한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50)자로 할 것. (20점)

## [문제 1-2]

제시문 (가)~(바)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연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100)자로 할 것. (30점)



# 2026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세대 간 정의 문제란 현재 세대에 살고 있는 인류가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해 어떠한 도덕적·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세대 간 정의의 문제들 중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 분배의 불균형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연금 관련 지출이 늘어났다. 그러나 출산을 저하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해진다.

(나)

3차 연금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보험료는 9%에서 13%로 오른다. 여야 합의안대로 가면 내년 9.5%, 2027년 10%, 이런 식으로 매년 0.5%p 올라 2033년 13%가 된다. 노후에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이하 대체율)은 내년에 43%로 오른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2차 개혁에 따라 올해 41.5%, 내년 41%, 2027년 40.5%, 2028년 40%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번 개혁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43%로 올라간다.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려고 시작한 연금개혁인데, 대체율이 올라가면서 개혁의 효과가 떨어지게 됐다. 대체율은 연금가입 전 기간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대체율이 올라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에 43%가 되면 그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한다. 이전에 가입한 것은 그 전 대체율을 적용한다. 가입 기간 별로 대체율을 쪼개서 적용한 후 더해서 최종 연금액을 산정한다. 대체율은 1988~98년 70%, 99~2007년 60%, 2008년 50%로 떨어졌고, 이후 매년 0.5%p 낮아져 올해 41.5%로 떨어졌다. 대체율이 올라도 기존 수급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금 가입 기간(만 59세)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의 노후연금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50대가 앞으로 10년 더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월 소득이 617만원인 A씨는 10년 치 연금액이 대체율 인상 에 따라 월 46만 3000원에서 49만7730원으로 약 3만원 느는 데 그친다. 25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041만원 늘어난다.

대신 보험료는 10년간 1925만원 증가한다.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인 309만원인 50대 B씨는 10년 치 연금이 33만원으로 2만 3000원 증가한다. 보험료는 964만원 늘는다. 이처럼 대체율 인상이 50대의 연금 증액에는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0대가 영향을 덜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보험료 인상은 바로 영향을 받아서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 30대에게는 이번 개혁의 영향이 제법 크게 나타난다. 보험료·대체율뿐만 아니라 출산·군 복무 크레딧에도 영향을 받는다. 크레딧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을 추가하는데, 이번에 첫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 12개는 첫째 아이부터 12~36개월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중 12개월 추가가 7개로 가장 많다. 군 크레딧은 9개 법안 모두 인정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전 복무 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걸 종합해서 30대의 예를 들어 따져보자.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5년가량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올해 전체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원)만큼 버는 C씨가 내년부터 25년 가입하면 월 83만44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여성이 첫째 출산 크레딧을 받으면 월 연금이 3만3200원 추가된다. 남성이 육군 출신이라면 2만5780원 추가된다. 연금과 크레딧을 합쳐 여성은 86만3640원, 남성은 86만7810원을 받게 된다. 지금보다 여성은 9만1140원, 남성은 8만3720원 증가한다.

결론적으로 30대가 25년 가입해서 25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여성은 2734만원, 남성은 2512만원 증가한다. 보험료는 양쪽 다 3189만원 늘어난다. 보험료 증가분이 더 커서 여성은 454만원, 남성은 503만원 부담



# 2026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이 늘게 된다.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안정 효과가 생긴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기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를 4.5%에서 5.5%로 올리면 기금 고갈이 2071년으로 늦춰진다.

(다)

연금개혁안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한 '소득보장파'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3040세대로서 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재정안정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을 각각 만나 상반된 주장의 논거를 직접 들어봤다.

-이번 연금 개혁에 대해 평가하자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우)=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적게 받게 하고, 내야 할 사람들이 더 내게 만드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해내야 하는 게 개혁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내야 할 사람들이 더 내게 만든 부분은 성과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도 더 받게 돼 반쪽짜리 개혁이 됐다. '기금 고갈'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청년세대만 희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버려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하 김)=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이에 '재정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조율해 나가면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가 이번 개혁안이다. 시민들이 원했던 안(보험료를 13%·소득대체율 50%)에 비해선 아쉬울 수 있으나 연금개혁의 두 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절충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청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우리만 희생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인구 구조 변화로 청년세대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희생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길 바란다. 미래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이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기성세대도 희생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오히려 올려 버렸다. 이것은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대 착취'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청년세대는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인구 구조 변화로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연금이 없다면 '노인들만 많고 청년은 없는' 미래 사회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결국 노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가 운영돼야 하는데, 기초연금처럼 그때그때마다 청년한테 걸어서 노인들을 먹여 살리면 그때는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인 것이지, 국민연금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연금개혁 관련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정치권이나 기성세대, 청년세대에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우=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특정 세대만 모든 고통을 부담하도록 세대 간 갈라치기를 했다. 지



# 2026학년도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금이라도 기성세대의 양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세대 간 갈등을 줄여야 한다. 이는 기성세대도 원하는 방법일 것이다. 기성세대도 당장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청년들이 '더 내야 한다'는 걸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성세대 역시 '덜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며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다. 끝으로 청년세대는 이번 개혁을 기억해 줘야 한다. 야당이 청년세대를 사실상 무시했기에, 청년들은 이 점을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치권이 연금 문제를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악화되면 그 피해는 청년들에게 더 크게 미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대 간 대결로는 접근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삶도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존엄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가난한 조부모나 부모를 둔 청년의 삶은 더 망가진다. 나의 이해관계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세대 간·계층 간 연대를 통해 연금개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

업적에 따른 분배는 어느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업적, 즉 업무 성과와 실적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무 성과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 입학이나 취업의 기회,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능력은 지능과 같은 선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노동 의욕 및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업적, 능력, 필요 등과 같은 분배의 실질적인 기준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측정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여러 기준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 [문제 2-1]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연금제도 문제에 대한 세대간 정의 문제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서 논의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주장을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 [문제 2-2]

제시문 (다)의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가 (라)의 세 가지 분배의 실질적 기준 중 어느 기준을 가장 중시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